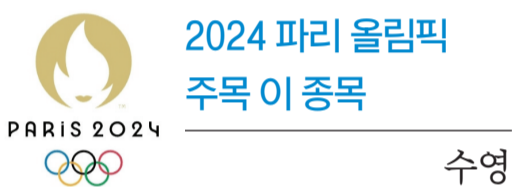


‘물 만났네’ 한국 수영... ‘일 내겠네’ 파리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와 김우민, 이호준이 18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수영센터에서 훈련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이 걸린 종목은 수영이다. 황금세대의 등장으로 르네상스를 맞은 한국 수영은 이번 여름 파리에 역대 올림픽 최고 성과를 기대한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경영 35개, 다이빙 8개, 아티스틱스위밍·수구·오픈워터스위밍 2개씩을 합해 49개의 금메달이 수영에서 나온다. 한국 수영은 다섯 개 세부 종목 중 수구와 오픈워터스위밍을 제외한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스위밍에서 총 4개의 단체전과 20개의 개인 종목 출전권을 확보했다. 경영에서 ‘계영 전용 여자’를 포함해 15명이 나

경영 김우민·황선우 등 ‘황금세대’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 기대 자유형 400m 12년만에·남자 계영 800m 단체전 첫 메달 도전

서고 다이빙 6명, 아티스틱스위밍 2명을 더해 총 23명이 파리를 향한다. 역대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은 메달 4개를 수확했다. 박태환 혼자 힘으로 거둔 성과다. 박태환은 2008 베이징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과 자유형 200m 은메달, 2012 런던 대회 자유형 200·400m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수영은 파리에 ‘새로운 한국인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 수영 최초로 단일 대회에서 복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탄생하는 것도 기대한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불참하긴 했지만 올해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4 세계수영선수권에서 한국 수영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김우민(강원도청), 자유형 200m 황선우(강원도청)가 금맥을 쫓고, 이호준(제주시청)과 양재훈(강원도청)이 가세한 남자 계영 800m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다이빙에서는 김수지(울산시청)가 개인 종목 여자 3m 스프링보드에서 3위에 오르더니 이재경(인천시청)과 함께 나선 혼성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개막 다음 날인 27일(현지시간)부터 낭보가 들릴 수 있다. 김우민은 27일 오전 자유형 400m 예선을 치르고, 같은 날 오후 결승에 나선다. 6월 2일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3차 대회에서 3분42

초42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김우민은 2024년 남자 자유형 400m 기록 순위에서 루카스 마르텐스(3분40초33·독일), 알라이자 워닝턴(3분41초41), 새뮤얼 쇼트(3분41초64·이성 호주)에 이은 4위를 달린다. 김우민이 시상대에 오르면 ‘우상’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딴 한국 수영 선수로 기록된다. ‘에이스’ 황선우는 28일에 자유형 200m 예선과 준결승을 벌이고, 29일에 메달 색을 놓고 역영한다. 김우민과 황선우는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면, 30일 출가분하게 남자 계영 800m에서 한국 수영 단체전 최초의 메달 획득에 도전할 수 있다.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배영 200m에서 5위를 차지한 이주호(서귀포시청)도 한국 수영이 쫓는 ‘깜짝 메달 후보’다. 다이빙에서도 ‘메달 후보’가 있다.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4위를 했던 남자 3m 스프링보드, 김수지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딴

여자 3m 스프링보드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8월 8일 우하람, 9일에는 김수지의 화려한 연기를 볼 수 있다.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에 한국 아티스틱스위밍에 올림픽 출전권을 선물한 이리영(부산수영연맹)-하은서(성균관대) 듀엣은 8월 9일 테크니컬, 10일 프리 연기를 펼쳐 한국 첫 톱10 진입을 노린다. 경영 종목에서 미국, 호주, 중국이 벌이는 자존심 대결은 파리 올림픽 수영 관전 포인트다. 미국은 ‘전설’ 케یتی 리데키가 견제하고, 부상에서 벗어난 케일리 드레슬, 시몬 매뉴얼 등 베테랑 등이 대거 파리행 티켓을 따냈다. 호주는 여자부 아리안 티트머스, 폴리 오켈러런, 케일리 매콘, 남자부 카일 차머스, 워닝턴, 쇼트 등 여러 종목에서 ‘메달 후보’를 보유했다. 남자 평영 강자 친하이양, 자유형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판잔리, 여자 접영 장우페이 등을 앞세운 중국은 미국과 호주를 위협할 정도의 전력을 갖췄다. /연합뉴스

‘접영 한국신’ 여수 출신 김민섭도 있다

5월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2차 대회’ 세계신 보유자 꺾고 우승

여수 출신의 접영 한국신기록 보유자 김민섭(20·독도스포츠단·사진)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경쟁력을 확인한다. 여수한려초-여수문수중-여수중고교를 졸업한 김민섭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리고 지난 3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를 연속 한국신기록을 달성했고, 지난 5월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2차 대회’에서는 세계 기록 보유자인 헝가리의 크리스토프 밀라크를 꺾고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한국 수영을 놀라게 한 인물이다. 김민섭은 지난 3월 22일 2024 파리올림픽경영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열린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 접영 200m 예선에서 1분55초45의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2022년 11월에 열린 2023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한국 신기록(1분55초95)을



그는 1분54초95만에 터치패드를 찍으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1분55초의 벽을 허물었다. 이는 최근 열린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록과 비교하면 결승 3위, 도쿄 올림픽 기록과 비교하면 결승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당시 김민섭 역시 자신이 54초대의 기록을 쓴 것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경기 후 김민섭은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54초 대라는 기록이 믿기지 않는다”며 “저의 주 종목(접영)으로 올림픽을 가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김민섭은 지난 5월 3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2차 대회’ 접영 200m 결승에서는 헝가리의 밀라크를 제치며 1분55초47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세계 기록 1분50초34(2022 부다페스트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 기록 1분51초25(2020도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밀라크는 이날 김민섭보다 0.20초 느린 1분55초67를 기록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력을 점검한 김민섭은 현재 진행 선수촌에서 파리 무대를 위한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2024 파리올림픽 남자 접영 200m 경기는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세단뛰기’ 곡성 출신 김장우 올림픽 가나

랭킹 포인트로 출전 자격 획득 세계 육상연맹 8일 최종 엔트리

곡성 출신 김장우(국군체육부대)가 남자 세단뛰기 ‘랭킹 포인트 순위’로 2024 파리올림픽 출전을 노린다. 세계육상연맹은 3일 파리 올림픽 랭킹 포인트 최종 순위를 공개했다. 김장우는 기록 인정 기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에 파리 올림픽 기준 기록(17m22)을 넘지 못했지만, 그동안 쌓아올린 랭킹 포인트 순위에 따라 파리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파리 올림픽 남자 세단뛰기에는 32명이 출전하는데, 김장우는 올림픽 랭킹 32위에 올랐다. 김장우는 장흥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뛰다가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다. 김장우는 지난 2월 이란 테레한에서 열린 2024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2위를 기록하며 한국에 유일한 대회 메달을 안겼었다. 그는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김장우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나선 광주시청 간판 김덕현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남자 세단뛰기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가 된다. 김장우는 앞서 일찌감치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용인시청)에 이어 남자 경보 20km 최병광과 함께 파리행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우상혁은 지난해 9월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세단뛰기 결선에 출전한 김장우가 1차시기를 도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2m35을 넘어 우승하며 파리 올림픽 기준 기록인 2m33을 통과했다. 한국 육상은 이번 올림픽에 이들 세 명만이 파리 올림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 한 명도 출전하지 못했던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가장 적은 수다. 한편 세계육상연맹은 각국 육상연맹에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를 공지하고, 오는 8일까지 최종 엔트리 정리를 마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KIA 정해영·이우성, 부상으로 첫 ‘울스타전’ 무산

장현식 선발

‘울스타 팬투표 1위’ 정해영과 ‘첫 베스트 12’ 이우성의 울스타전이 부상으로 무산됐다. KBO가 3일 부상으로 인한 울스타전 출전 선수 명단 교체 발표했다. KIA 투수 정해영과 내야수 이우성, 롯데 내야수 손호영, SSG 외야수 에레디아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지고 이들을 대신해 KIA 투수 장현식, 키움 내야수 송성문, SSG 내야수 박지환, 롯데 외야수 황성빈이 울스타전에 나선다. 정해영은 울스타팬 투표 결과 139만 6077표를 기록하며 136만 2773표를 얻은 두산 양의지에 앞

서 ‘최다 득표’ 타이틀을 차지했다. 마무리투수 부문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울스타전 이후 마무리로는 첫 최다 득표 1위, 2022년 양현종에 이어 KIA 투수 두 번째 팬 최다 득표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정해영은 지난 6월 23일 한화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9회 등판해 어깨 통증으로 자진 강판했다. 이후 우측 어깨 회전근개염 증진단을 받으면서 전반기를 일찍 마무리했다. 이우성은 1루수 부문에서 첫 베스트 12에 선정됐지만 지난 6월 27일 사직 원정에서 우측 햄스트링 힘줄 손상 부상을 당하면서 기다리던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한편 KBO는 ‘해당 포지션 차점자 베스트 12 선정 후 감독 추천선수 대체 선발’이라는 리그규정 제 53조[세칙]1항에 의거해 교체 선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해영을 대신해 중간 투수 부문 최다 점수 2위 한화 주현상이 베스트 12로 나서게 된다. 주현상이 앞서 감독추천으로 울스타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만큼 장현식이 대신 감독추천선수로 낙점됐다. 이우성에 이어 1루수 부문 최다 점수 2위 LG 오스틴도 감독추천 선수에서 베스트12로 자리가 바뀐다. 오스틴을 대신해 송성문이 감독추천선수로 대체 선발됐다. 또 에레디아의 부상으로 인해 외야수 부문 최다 점수 4위 황성빈이 베스트12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